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초기 성인기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의 이중매개효과[†]

김 가 령
동아대학교병원

박 준 호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있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271명을 대상으로 외상경험 척도(TAQ), 관계중독 척도(RAQ), 심리적 수용 척도(K-AAQ-II),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TSSS)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상관 분석,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수용할만한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부트스트랩 분석을 통해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중독은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정적 상관이 있고, 자기체계 손상은 심리적 수용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수용은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관계중독의 사이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관계중독의 사이에서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은 순차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논의 하였으며, 추후 연구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 관계중독, 심리적 수용, 자기체계 손상

[†] 이 논문은 김가령의 석사학위 청구논문(2017)을 수정 정리한 것임.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됨.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민규, (660-701)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 055-772-1264, E-mail : rmk92@chol.com

사회를 살아가며 맺는 관계는 무수히 많고, 다양하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대인외상과 같은 부정적 대인관계를 경험하기도 한다(Friedman, Keane, & Resick, 2007). 이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위협받을 정도의 사건을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한다(Ozer, Best, Lipsey, & Weiss, 2003). 이러한 외상에 대한 정의는 사건 그 자체의 객관적인 특성보다 외상에 대한 개인의 지각,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 등의 경험들로 정의될 수 있는데, 주관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 되는 것 모두가 외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Calhoun & Tedeschi, 1999; 최승미, 2008에서 재인용). 대인관계에서의 상처나 실패경험 등과 같은 외상경험은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며(Friedman et al., 2007), 신체건강과 건강행동까지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ykin et al., 2001; Pacella, Hruska, & Delahanty, 2013; Wagner, Wolfe, Rotnitsky, Proctor, & Erickson, 2000). 세계 보건 국제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ICD-10의 분류체계에서 “대인관계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이란 진단범주를 대인외상의 진단으로 추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외부 세상을 향한 적의감과 불신, 공허감과 무망감, 항상 긴장된 상태이거나 위협을 느끼고 단절된 느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진단범주를 통해 대인외상 경험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아동기 대인외상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 성인기 대인외상보다 더 장기적인 손상을 가져온다고 하며(Finzi, Har-Even, &

Weizman, 2003), Courtois와 Ford(2009)는 결정적 시기를 강조하면서 아동기는 자기정의(self-definition)와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 형성 되는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아동기에는 대인관계에 대한 초기 도식이 형성되는데, 대인외상 경험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대한 초기 도식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외상경험 이후 정서조절, 인지, 자기개념, 대인관계 등 전반적인 발달 뿐만 아니라 장기간으로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권해수, 2003; 심현진, 2013;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또한 어린 시절에 외상사건을 경험했다면 타인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초기 모델이 없어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대응하여 또 다른 외상사건에 노출될 수 있으며(Raja, 2015),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발달 과정에서 여러 변화를 겪게 되는데, 예를 들어 신체화, 우울, 해리 증상을 보이거나 정서조절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기 파괴적 또는 충동적 행동을 보이거나, 대인관계가 손상되는 등의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이처럼 아동기에 경험한 대인외상이 초기 성인기에 부적응적인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고나래, 2008), 건강하지 못한 대응 방법으로서 관계중독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허은정, 201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아동기 외상 경험은 성인기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함을 알 수 있고, 특히 초기 성인기에는 이성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관계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한 외상을 대인외상이라고 명명할 것

이다.

Erikson(1963)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초기 성인기 발달과업으로 친밀감을 제시하였고, 친밀한 관계형성의 반복적인 실패는 우울과 외로움, 정서적 고립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Doi & Thelen, 1993). 1982년 Sandor Rado가 처음으로 관계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고 내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고 하였다(Sandor, 1982; Scarf, 1980에서 재인용).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의선(2004)은 관계중독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관계중독의 정의를 소개하였다. 관계중독이란 관계의 형태가 중독적인 방식으로 나타나 관계의 질과 개인의 안녕을 저하시키는 병리적 관계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의선, 2004).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린 시절 좌절했던 사랑, 애정, 보살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나, 오히려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재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Bireda, 1990/2005). 관계중독을 겪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허함을 채우고 안정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Whiteman & Peterson, 1998/2004), 관계중독자들은 자신이 혼자라는 외로움과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게 되고, 불안과 외로움, 허전함을 관계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도는 심해지게 된다(한진주, 2007). 관계중독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면, 외상 이론에서는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중독적인 행위에 빠지기 쉽다고 하며, 그 이유는 스스로 힘이 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 때 중독적인 행위를 함으로

써 자신이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고, 이전에 경험하고 싶었던 안전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Blum, 1973). Kohut(1977)은 관계중독에 빠진 사람의 어린 시절 경험과 발달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초기 발달상에 문제를 가진 사람은 ‘자기구조, 자기감정, 자기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초기 발달 시기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관계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Margaret & Stephen, 2002; 이의선, 2004에서 재인용). 이를 통해 대인외상 경험이 관계중독의 원인이 되고, 충족되지 못한 경험과 감정이 병리적인 관계중독으로 악순환 되는 과정임을 추론할 수 있다. 집착으로부터 오는 관계중독 즉, 충분한 보살핌의 결핍에 의한 의존증적 이상행동은 개인차가 있지만 가장 먼저 자신의 집착, 과도한 의존 등의 이상행동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해야한다. 인정하고 난 이후에는 건강한 방향의 표현방법을 찾을 수 있고, 결핍에서 오는 집착과 의존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것을 풀어 놓게 되고, 결과로 내적성장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한진주, 2007). 이와 같이 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구조에 문제를 초래시켜 관계중독의 경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으며, 외상 경험 이후에 가장 먼저 심리적 수용을 통해서 이후의 자기구조와 중독성향에 부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는 모두가 PTSD 증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은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선미, 김정희, 2002; 이인숙 외, 2003; Dunmore & Ehlers, 1999). 이러한 위험요인 중에서는 아동기

에 경험한 발달적 외상경험이 위험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Van der Kolk, 2005). 이는 발달시기에 경험한 대인외상 경험이 성격과 자기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증상들로 발현하기 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실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다른 행위나 물질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준수, 조진무, 송윤미, 이정권, 2004; 장문선, 박기쁨, 정성훈, 이상우, 2011).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고, 외상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에 직면하기보다 사건이나 상황을 회피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이를 경험적 회피라고 부르며, 외상과 관련한 사고, 정서, 신체적 감각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일컫는다(Resick & Schiche, 1996; 고아름, 2012에서 재인용). Tull과 Roemer(2003)는 정서를 받아들일 경우 정서적 불편감이 줄어들며, 정서를 억압하게 되면 이후 더 큰 불편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정서를 회피하는 것은 적응적인 측면을 떨어뜨리고 덜 효과적인 행동을 초래하며, 더 고통스러운 정서적 경험으로 이어지게 된다(Kring & Bachorowski, 1999). 심리적 문제와 고통은 부정적인 경험자체로 인한 것보다 통제하려는 반응인 경험회피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한편 심리치료 과정에서 피하거나 없애려고 투쟁하는 ‘회피’ 대신에 충분히 경험하고 자각하는 것이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ch & Hayes, 2002). 이는 경험회피 대신 수용이라는 심리적 대처를 사용했을 때, 즉 위협적으로 지각되었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임으로써 상황들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됨을 시사한다(문현미, 2006). 이에 따라 대인외상 경험자들

이 외상을 극복하는 요소로써 심리적 수용에 주목해야 한다. 심리적 수용이란 개인적 경험을 피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문현미, 2006). Dougher(1994)에 따르면, 심리적 수용이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능력과 대처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삶에 대한 적응력과 안녕감을 높인다고 하였다. Greenberg와 Safran(1989)은 심리적 수용의 태도로 사고와 감정을 충분히 경험한 내담자일수록 심리치료에서 좋은 치료결과를 나타냈다고 입증하였다. Hayes(2006)의 연구에서도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반응의 선택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윤호균(2005)은 심리적 수용을 통해 경험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기에 대인외상을 경험한 이후 심리적 수용을 통해 자기체계 손상과 관계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Herman(1992)은 인간은 자기를 변화시키면서 심리적 외상에 적응해 간다고 주장하였으며 대인외상으로 인한 자기개념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외상 연구자들은 대인외상으로 인해 개인의 심층적인 성격구조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이를 자기체계 손상(Harter, 1999)이라고 명명하였다. Luxenberg, Spinazzola와 Van der Kolk(2001)는 외상경험이 자신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모든 잘못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Courtois와 Ford(2009)는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개념, 정서 조절, 대인관계, 자기 기능의 영역

에 걸쳐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자기체계 손상의 하위유형으로는 주체적 자기손상, 대상적 자기손상 자기조절, 관계적 자기손상이 있고, 주체적 자기손상이란 자기자각, 자기지속성, 자기통합성 등이 손상된 상태를 말한다(Briere, 1997; Cole & Putnam, 1992; Grand, 2003; Harter, 1999). 대인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 내부에서 경험되는 것에 대한 자기 자각 능력이 손상되고 통제력과 예측력의 상실을 통해 자기주도성의 손상을 경험할 수 있다(Foa, Zinbarg, & Rothbaum, 1992). 또한 대인외상 경험은 시간이 변하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일관된 관점을 갖는 자기 지속성에 결함을 가져오며, 이는 전체로서 통합된 자기감을 손상시켜 대인관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Harter, 1999). 대상적 자기 손상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구성개념인 대상적 자기가 왜해지는 것을 말하며, 죄책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대인외상 이후 경험할 수 있는 핵심정서로 강조되고 있다(Wilson, John, Drozdek, Boris, & Turkovic, 2006). 자기조절이란 심리적 기능과 상태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하는 과정(Baumeister & Vohs, 2004)이고, 사고, 정서, 충동성, 주의과정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만큼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정서조절 실패 등 다양한 심리장애를 설명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다(Baumeister & Vohs, 2004). Cook 등(2005)은 대인외상 경험자들의 자기조절 손상은 정서조절에 있어서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충동 또는 행동조절에서의 손상도 가져올 수 있음을 제기하였고, 자기 파괴적 행동은 자기 스스로 의지에 의한 행동이므로 통제감을 느끼게 한다(안현의 외, 2009). 마지막으로 관계적 자기 손상은 개인의 대인관계 패턴을 시사

하는 것으로 자기와 타인, 대인관계에 대한 표상이 왜곡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대인관계 문제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대인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인 만큼 관계적 자기개념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고옥주, 2015). 이러한 외상을 경험한 후 외상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감정, 사고 등을 회피한다면 또 다른 문제 상황이 왔을 때 대처가 힘들어지고 이는 자기개념 및 자기체계의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지-정서이론의 틀에서 자세히 설명될 수 있는데,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심리구조는 자기, 타인, 외부세계에 대한 내적표상(도식, 인지적 테마)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외상 경험은 충격적이고 강렬한 정서반응을 일으키는 왜곡된 내적 표상으로 각인되고, 기존의 적응적인 도식이나 테마마저도 부적응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거나 적응적인 도식의 생성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Lebowitz, 1996; 안현의, 2007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발달과정에서 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자기체계의 손상과 그로 인한 정서적 문제, 인지적 왜곡,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은 Harter 등(1999)의 연구자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아동기 외상경험은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능력이나 조망수용능력을 저해하고, 대인관계 정서적 반응성을 증가시키게 된다(김환, 한수미, 2015). 공감적 이해능력이나 조망수용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성이 높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과잉반응 또는 몰입과 연관되는 관계중독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린 시절 가족 내 심리적 외상경험

은 관계중독의 중요한 심리-사회적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 단순 PTSD와는 달리 대인외상은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심리구조의 손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심리적 기제를 밝혀내는데 주력해야 하고(한수경, 2013), Herman(1992)은 인간은 자기를 변화시키면서까지 심리적 외상에 적응해간다고 주장하였으며 대인외상으로 인한 자기개념의 변화에 주목하였는데, 이후 대인외상으로 인한 개인의 심층적인 성격 구조의 변화를 자기체계 손상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Harter, 1999). 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수용행동의 감소가 심리적 고통을 유지시키는 데 원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직면 보다 억압 또는 회피를 대처수단으로 선택하기 쉽기 때문이다(Erdelyi & Goldberg, 1978).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초기 발달단계인 아동기에 학대나 방임,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대인외상 경험은 이후 여러 심리적 후유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개인의 부적응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기개념과 자기구조, 정서 및 행동문제, 대인관계 문제, 관계중독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선행연구(이유경, 2006; 한진주, 2007)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인외상 경험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중 관계중독에 초점을 두고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그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 성인기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Erikson, 1963). 이처럼 초기 성인기가 대인관계형성과 유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발달적 단계임을 고려했을 때, 아동기에 대인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초기 성인기의 관계중독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매개요인을 찾고, 관계를 밝히는 것은 관계중독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입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기에 경험한 대인외상 이후에 심리적 수용이 치료적 방법으로 관련이 있고(노푸른, 2014; 주수진, 손정락, 2015),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대인외상 경험이 심리적 수용을 통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이다. 셋째,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있는 초기 성인의 모두가 관계중독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상경험 자체가 아니라 외상으로 손상된 도식과 체계가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대인외상 경험으로 인한 변화를 불안, 우울 등의 증상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개념의 변화로 인한 자기체계의 손상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대인외상 경험이 있는 대상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장진이, 2010), 대인외상이 다양한 하위 영역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구성개념으로서 자기체계 손상을 초래하며, 이러한 자기체계 손상이 관계중독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넷째, 그동안의 연구들은 대인외상 경험이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을 찾는 연구가 다수이며(고나래, 2008; 배미향, 2014), 초기 성인기에 경험할 수 있는 관계중독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대인외상 경험으로 인해 관계중독의 문제를 호소할 경우, 과거경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외상으로 인한 자기체계의 회복과 발달을 돕는 심리적 수용의 영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관계중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아동기 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을 통해 관계증독에 순차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동기 대인외상이 관계증독으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변인 간 관련성을 토대로 통합적인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관계증독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밝힘으로써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관계증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매개변인에 개입 가능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모형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은 관계증독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은 심리적 수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관계증독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은 자기체계 손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관계증독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은 심리적 수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체계 손상에 정적 영향을 미쳐 관계증독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은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관계증독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의 순차적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인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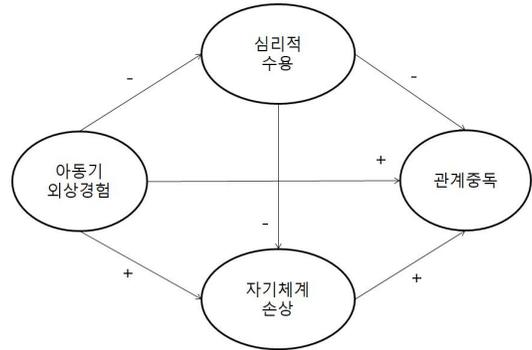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법

참여자

초기 성인기의 발달단계의 과업인 친밀감 획득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발생시키는 관계증독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을 겪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범주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의 만 18세~3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400명의 성인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회수가 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n=86$), 대인외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거나 대인외상 사건 당시의 주관적 고통의 정도가 보통(4점)이하로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여($n=43$), 최종적으로 27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271명 중 남성은 138명(51%), 여성은 133명(4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4.3세($SD=3.6$)였다.

연구절차

설문조사 실시에 앞서, 표본 수집 절차와 연구

참여자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진주시 소재의 G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GIRB-A16-Y-0036). 익명보장과 연구목적 이외에 응답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였으며, 설문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자가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설문조사를 중단하였고, 그러한 경우 해당 자료는 모두 폐기 처리하였다. 그리고 응답을 완료한 참여자에게 설문참여에 대한 1,000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측정도구

외상경험 질문지. 외상사건의 종류와 외상경험의 주관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 송승훈(2007)이 사용한 외상사건 12목록을 신선영(2009)이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외상사건의 종류와 시기, 외상경험의 주관적 고통을 측정하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문항들에서는 앞서 정의한 외상사건을 떠올리며 해당사건이 일어난 후 현재까지의 경과 시간과 사건 당시 및 현재의 주관적 고통감을 7점 Likert 척도이며, '1=전혀 고통스럽지 않음'에서 '7=매우 고통스러움'까지로 평정하도록 하여 외상경험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자연재해, 교통사고, 학업-직업적 문제 등에서 경험한 사건을 제외하여 사용하였으며, '4점=보통이다' 이하로 응답한 대상은 제외하고 '5점=약간 고통스러웠다' 이상으로 응답한 271명만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외상사건 당시 고통감의 정도는 '6=고통스러웠다'가 118명(43.5%)로 가장 많았다.

대인외상: 외상경험 척도(TAQ). 대인외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Van der Kolk(1996)가 개발한 '외상경험 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를 고나래(2008)가 번역, 역번역,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에는 '방임',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분리경험', '가족 내 비밀',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정서적 학대', '가정폭력 목격', '다른 외상경험(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술과 약물 남용의 노출'로 구성되어 있고, '0=만 18세 이전에 부모나 가족 구성원 혹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외상경험이 전혀 없었음'에서 '3=자주 있었음'까지로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45점에 분포할 수 있다(고나래, 2008). 본 연구에서는 표본 참여자 중 성적학대가 드물어서 의미 있게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적 학대를 제외하고 하위 요인 중 대인 외상 경험을 다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요인만을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고나래(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TAQ의 내적합치도는 .79로 나타났다.

심리적 수용: 한국판 심리적 수용성 척도(K-AAQ-II). 심리적 수용 척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기꺼이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 행동 질문지-II(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II)를 사용하였다. AAQ-II는 Hayes가 개발한 수용 행동 질문지-I를 단일차원의 척도로 개정한 척도이다(Hayes, 2004: 허재홍, 최명식, 진현정, 2009에서 재인용). Hayes에 의하면, AAQ-II는 기존의

AAQ-I 척도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면서도 기존의 AAQ-I 보다 더 간결하기 때문에 심리측정적인 치료 및 연구 상황에서 AAQ-II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하였다. AAQ-II는 7점 Likert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수용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최소 1점부터 최대 70점에 분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ond 외(2011)가 개정하고, 허재홍 등(200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AAQ-II의 내적합치도는 .83로 나타났다.

자기체계 손상: 외상화된 자기체계(TSSS). 대인외상으로 인한 자기체계 손상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장진이(2010)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8문항으로 주제적 자기손상(자기지속성, 자기 자각, 자기통합성, 자기주도성) 24문항, 대상적 자기손상(부정적 자기, 죄책감, 수치심) 15문항, 자기 조절 손상(과잉 자기조절, 과소 자기조절, 자기 파괴적 행동) 15문항, 관계적 자기손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0=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까지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각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외상으로 인한 자기체계 손상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장진이(2010)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TSSS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관계중독 질문지(RAQ-30). 관계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RAQ-30(Relationship Addiction Questionnaire)척도는 Susan(2011)이 임상장면에

서 관계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총 40개의 진술문을 담고 있는 질문지이다. 각 진술문들은 이성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나 생각, 행동의 중독적인 특징들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우(2014)는 이에 기반 하여 국내판 관계중독 설문지 RAQ-30을 재구성하였으며 타당한 요인구조를 발견하지 못하여 단일요인으로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였다. 관계중독 척도(RAQ-30)는 단일요인의 척도이므로 요인부하량 값이 유사하게 묶이도록 문항을 나누어 임의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문항묶음(Parceling)을 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중독 성향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상우(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RAQ-30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Statistic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및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Amos 21.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검증, 간접효과 검증을 하였다. 자료 분석 이전에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거나 사건 당시의 주관적 고통의 정도가 보통(4점)이하로 응답한 자료 및 결측치가 있는 자료는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EM)은 측정오차를 분석에 반영한다는 장점을 가졌으나, 각 구성 개념에 대한 문항의 수가 많을 경우 주요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 해결 방법으로 문항묶음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조현철, 강석후, 2007). 문항묶음을 통해 분석할 경우 모델인과 모수의 검정 통계량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전반적 적합도 지수의 측면에서는 RMSEA를 제외한 주요 모델 적합도 지수 GFI, CFI의 값들이 상당히 좋아지므로 보다 안정적인 모수 추정이 가능하다(조현철, 강석후, 2007). 측정모형의 간명성과 모형적합도 및 추정치의 정확성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요인 당 세 개 또는 네 개의 문항묶음이 적절한 개수라고 판단되는데(이지현, 김수영, 2016), 관계중독 척도(RAQ-30)는 하위요인이 없는 단일차원의 척도이므로 요인부하량 값이 유사하게 묶이도록 문항을 나누어 임의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은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적합도 지수는 χ^2 , GFI, TLI, CFI, SRMR, RMSEA를 사용하였다. 모수 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모형검증은 측정모형을 추정한 후에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2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배병렬, 2014). 전체

간접효과 및 특정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방식과 팬텀변수를 사용하였다.

결 과

각 변인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참여자들의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 심리적 수용, 자기체계 손상 그리고 관계중독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네 개의 변인 간 모두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검증

본 연구는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관계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수용, 자기체계 손상이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각각 부적, 정적으로 간접(매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각 변인들의 인과적 구조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개념적 연구 모형을 측정모형으로 전환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 변인 간 상관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N=271)

	1	2	3	4	M(SD)
1	-				5.48(4.97)
2	-.30**	-			34.77(7.18)
3	.40**	-.78**	-		59.67(34.12)
4	.21**	-.54**	.59**	-	39.9(11.56)

주. 1.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 2. 심리적 수용, 3. 자기체계 손상, 4. 관계중독.

** $p < .0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N=271)

χ^2	df	p	GFI	TLI	CFI	SRMR	RMSEA (90%신뢰구간)
199.44	113	.00	.92	.96	.97	.04	.05 (.0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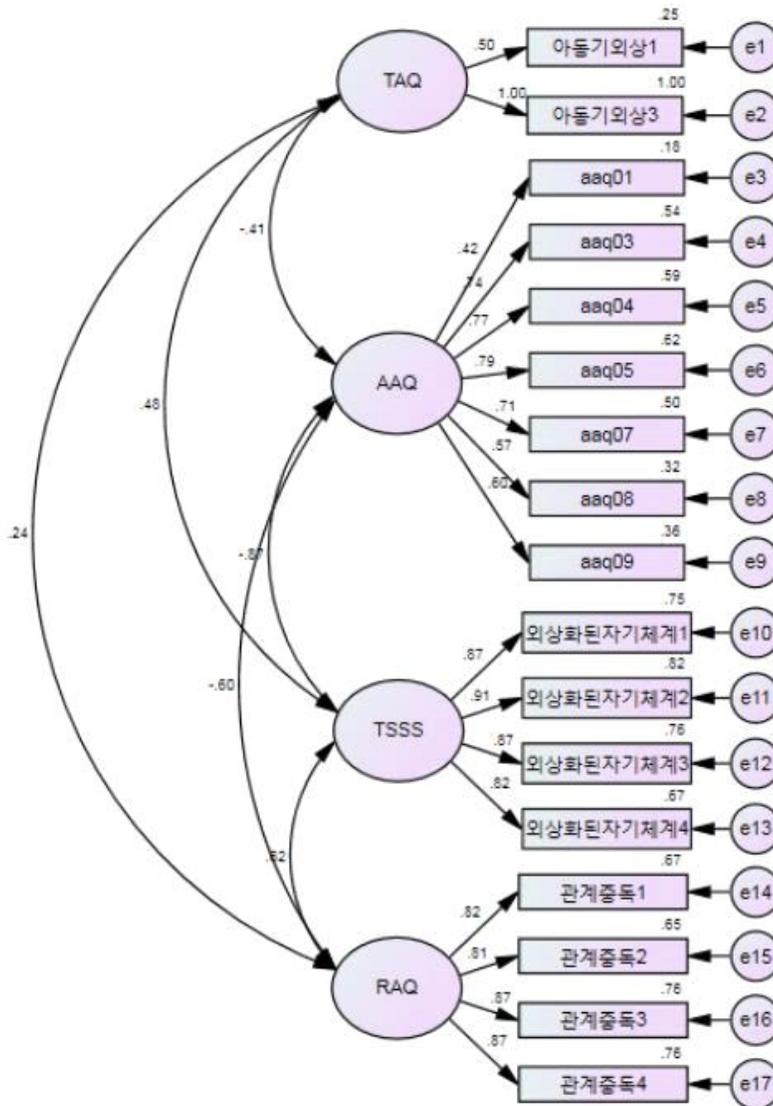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χ^2 은 전반적 적합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치로 모델 적합도 평가에 이용되는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GFI는 표본의 크기나 다변량 정규성의 위반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델의 적합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수용 수준은 0.90 이상이다. TLI와 CFI는 제안모델이 기초모델에 비해 어느 정도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증분적합지수로 권장되는 수용수준은 0.90 이상이다. RMR은 표본자료에 의해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분산, 공분산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표본자료의 측정 단위들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표준화 RMR(SRMR)을 보고 0.08 이하면 모델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RMSEA는 표본크기가 큰 제안모델을 기각시키는 χ^2 검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이며, 0.05에서 0.08의 범위를 보일 때 수용가능하다고 간주한다(배병렬, 2014),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여 구조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후 간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

타났고, 측정모형의 검증결과는 표 2,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든 모수 추정치는 .42에서 1.00 사이의 표준화 계수를 보이며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검증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적합도는 $\chi^2(114, N=271)=200.848, p=.000, GFI=.918, TLI=.962, CFI=.968, SRMR=.040, RMSEA=.053, 90\% CI [.041, .065]$, 으로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기 때문에 각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한 경로계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은 등치모형으로 동일한 잠재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설정된 변수 간 관계의 유형 및 수가 다른 모형이다. 모형의 비교는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간 χ^2 및 적합도 지수의 크기 등을 검토한 뒤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χ^2 차이를 검증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Delta df=2$ 일 때, 본 연구에서 χ^2 의 차이 값은 4.76으로 수정모형이 자유도 차이 값을 상쇄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N=271)

			B	β	S.E.	C.R.	p
아동기 대인외상	→	관계중독	-.05	-.07	.04	-1.24	.21
아동기 대인외상	→	심리적 수용	-.12	-.41	.02	-6.35	***
아동기 대인외상	→	자기체계 손상	.55	.15	.17	3.33	***
심리적 수용	→	자기체계 손상	-10.66	-.81	.92	-11.64	***
심리적 수용	→	관계중독	-.52	.25	.31	-1.71	.09
자기체계 손상	→	관계중독	.07	.44	.02	3.01	**

주. ** $p < .01$ *** $p < .001$.

시킬 수 있을 정도의 $\Delta\chi^2$ 을 나타내었으므로 수정모형이 연구모형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6).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관계증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 및 심리적 수용이 관계증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제외된 모형을 수정모형으로 설정하였다(그림 2).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16, N=271)=205.612, p=.000, GFI=.917, TLI=.962, CFI=.967, SRMR=.044, RMSEA=.053, 90\% CI [.041, .065]$, 로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기 때문에 각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한 경로계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 표 5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두 모형 모두 적합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수정모형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차이

검증을 통해 두 모형을 비교 할 수 있다. χ^2 의 값은 작을수록, df 의 값은 클수록 좋은 모형인데, 자유도 2 차이에서 χ^2 의 차이가 5.99이상이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송인섭, 2001). 본 연구에서 자유도 2 차이에서 χ^2 의 차이는 4.76로 두 모형 간의 값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4.76, \Delta df=2$. 즉, 최초 연구모형에서 2개의 경로를 제거하였으나 전반적인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손실을 보지 않았으며 모형은 더욱 간명해졌다. 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적합도 지수는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동시에 간명한 모델을 선호해야 한다(Steiger & Lind, 1980).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적합도 지수는 불필요하게 복잡한 모형을 선호하지 않아야 하며, 모형오류와 간명성을 다 고려한 최적의 상태에서 가장 좋은 값을 보여야 한다(홍세희, 2000).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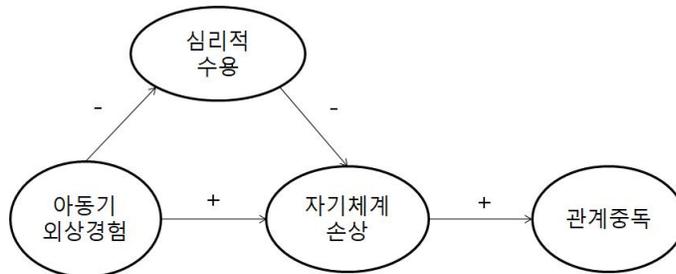


그림 3. 수정모형

표 4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N=271)

	χ^2	df	p	GFI	TLI	CFI	SRMR	RMSEA (90%신뢰구간)	$\Delta\chi^2$ (df)
연구모형	200.848	114	.000	.918	.962	.968	.040	.053 (.041~.065)	4.76
수정모형	205.612	116	.000	.917	.962	.967	.044	.053 (.041~.06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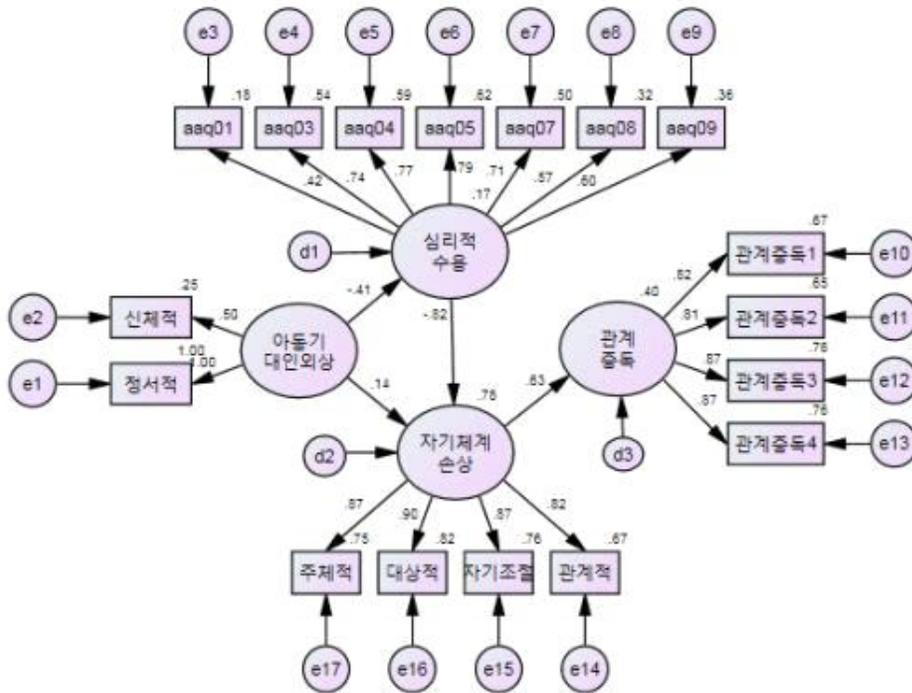


그림 4.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표 5. 수정모형의 경로계수(N=271)

		B	β	S.E.	C.R.	p	
아동기 대인외상	→	심리적 수용	-.08	-.41	.02	-4.97	***
아동기 대인외상	→	자기체계 손상	.15	.14	.05	3.19	***
심리적 수용	→	자기체계 손상	-4.39	-.82	.67	-6.51	***
자기체계 손상	→	관계증독	.36	.63	.04	9.70	***

주. *** $p < .001$.

서 본 연구에서는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자유도가 더 큰 수정모형을 채택하였다.

간접효과검증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관계증

독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실행을 위해 원자료(N=271)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표본 자료가

표 6. 경로의 직접 및 간접효과(N=271)

		직접효과(B)	간접효과(B)	
아동기 대인외상	→	관계증독	-.05	.19**
아동기 대인외상	→	심리적 수용	-.12***	-
아동기 대인외상	→	자기체계 손상	.55***	1.26**
심리적 수용	→	자기체계 손상	-10.66**	-
심리적 수용	→	관계증독	-.52	-.76**
자기체계 손상	→	관계증독	-.07**	-

주. 값은 표준화된 경로계수.

** $p < .01$ *** $p < .001$.

표 7. 경로의 특정간접효과(N=271)

				B	Lower	Upper	p			
아동기 대인외상	→	심리적 수용	→	관계증독	.06	.006	.077	**		
아동기 대인외상	→	자기체계 손상	→	관계증독	.04	.001	.142	*		
아동기 대인외상	→	심리적 수용	→	자기체계 손상	→	관계증독	.09	.018	.155	**

주. * $p < .05$ ** $p < .01$.

모수추정에 사용되었고, 신뢰 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해 얻은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유의 수준은 표 6에 제시하였다.

다중 간접 영향 모형의 경우 특정 간접 효과와 전체 간접 효과에 대해 별도의 부트스트랩이 실시되어야 하지만 전체 간접 효과에 대한 결과만 제공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팬텀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대인외상이 관계증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심리적 수용의 간접효과, $B = .06$, $p < .01$, 와 자기체계 손상의 간접효과, $B = .04$, $p < .05$, 가 유의하였다. 또한 아동기 대인외상에서 심리적 수용, 자기체계 손상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관계증독에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B

$= .09$, $p < .01$.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 대인외상을 경험한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수용, 자기체계 손상의 매개변인을 통해 관계증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관계증독으로 가는 경로에서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의 역할을 규명하고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 심리적 수용, 자기체계 손상, 관계증독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대인외상을 경험한 개인의 심리적 수용과 외상으로 인한 자기체계 손상이 관계증독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및 경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은 관계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주요 변인들 간 상관 분석 결과에서, 연구가설 1의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관계중독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에 대인외상을 경험하는 것이 관계중독의 원인이 됨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수민, 2016; 김환, 한수미, 2015; 한진주, 2007). 연구가설 2의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은 심리적 수용에 부적 영향을 미쳐 관계중독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은 심리적 수용과 부적 상관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관계중독에는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심리적 수용 간에 부적인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노푸른, 2014; 주수진, 손정락,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아동기에 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심리적 수용이라는 대처를 사용했을 경우에 관계중독 성향이 낮아질 수 있도록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가설 3의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은 자기체계 손상에 정적 영향을 미쳐 관계중독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은 자기체계 손상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중독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진이(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은 자기체계 손상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확고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가설 4의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은 심리적 수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체계 손상에 순차

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쳐 관계중독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은 심리적 수용에 부적 상관을, 자기체계 손상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관계중독에 정적으로 상관이 나타났으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심리적 수용이라는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 외상으로 인해 자기체계가 손상되고 결과적으로 관계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이 부분매개 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수정모형인 완전매개 모형과 비교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매개변인을 통해서 관계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접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손승희, 2017)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인의 설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심리적 수용 및 자기체계손상은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관계중독으로 가는 직접적인 영향을 상쇄 시킬 만큼 강력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기에 대인외상을 경험했다고 해도, 발달과정에서 경험회피를 하지 않고 심리적 수용을 하게 되면 자기체계 손상에도 부적 영향을 미쳐 관계중독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기에 대인외상 경험이 있는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관계중독 양상이 나타나는 대상에게 적용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임상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완전매개 경로에서 확인되었듯이 성인기 초기의 관계증독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계증독의 증상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이 관계증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우선해서 개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증독은 대상이나 물질에 대한 욕구표현이라기보다, 자기의 구조적인 결핍을 매우기 위한 시도이며, 부모가 자기대상의 기능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관계증독이라는 역기능적 경로로 정동을 조절하고자 하는 잘못된 시도가 일어나게 된다(Kohut, 1977). 그렇기 때문에 정동의 조절을 위해서 심리적 수용과 자기구조의 변화가 문제시 되는 자기체계 손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계증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독 증상에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으로 자기의 손상과 관련된 자기체계 손상을 심리적 수용을 통해 다루면서 대상이 요구하는 자기의 구조와 기능을 확인하고 자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에서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을 순차적으로 거쳐 관계증독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이는 아동기에 대인외상을 경험한 이후 심리적 수용이라는 대처기제가 중요하며, 심리적 수용이 자기체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되며 관계증독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관계증독의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관계증독을 애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김지연, 심혜원, 2015; 이지원, 이기학, 2014).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관계증독 간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관계증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건강한 대인관계 및 이성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미치게 하는 아동기 대인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관계증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치료에서 아동기에 대인외상 경험이 있는 대상이 관계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행동 또는 관계증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선행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만(이태영, 2011; 배미향, 2014),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 중 관계증독에 초점을 두었다. 심리적 외상경험이 관계증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일치하게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관계증독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기에 대인외상 경험이 있을 때 성인기에 관계증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치료자는 내담자 및 환자의 대인관계 문제 중 관계증독에 대해 깊이 탐색함으로써 전반적인 대인관계 문제와 다른 전략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자기체계 손상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은 연구에 의해 언급되었으나(고옥주, 2015; 한수경, 2013), 이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또는 관계증독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관계증독을 발생시키는 여러 변인 중 자기체계 손상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으로 인해 관계증독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위험요인으로써의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관계증독 간의 관계에서 자기체계 손상이 작용하는지 다룸으로써 관계증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

다. 또한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자기체계 손상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를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있고, 외상경험 후 주관적 고통의 정도가 보통(4점) 이상인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측정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였다. 많은 기존 연구들에서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은 평균이 현저하게 낮고, 이상치에 근접하므로 대상자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박은미, 1999; 최나운,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언을 참고하여 외상경험 질문지를 통해 연구 대상을 스크리닝 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그동안 국내에서 관계중독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이므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적인 변인으로서 자기체계 손상과 자기체계가 손상되기 전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 이후 개입되어야 하는 심리적 수용의 변인으로 아동기 대인외상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기제임을 확인하였다. 대인외상을 경험한 아동이 성인기 초기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관계중독에 이르게 될 때,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이라는 매개변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셋째, 심리적 수용에 대해서는 외상분야의 많은 연구들에 의해 언급되었으나, 관계중독과 관련된 내용들은 미비하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외상 이후 수용전념치료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주수진, 손정락, 2015)와 일치하는 것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매개 변인으로 연구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으로 인해 관계중독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선행요인으

로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관계중독 간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에 대해 다룸으로써 관계중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과 관계중독 간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의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연구가 미흡했던 관계중독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었으며, 관계중독의 양상을 나타내는 내담자 또는 환자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하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심리적 외상을 경험했던 사람은 성격 및 자기체계의 변화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으며, 심리적 고통을 많이 느낄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아동은 경험한 사건과 인지,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다루는 것을 회피하는 대처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는데(김수민, 2016), 이것은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동기 대인외상 경험에서 관계중독으로 향하는 직접경로의 유무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함으로써 변인 간 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기에 대인외상 경험 이후 어떠한 과정과 기제를 거쳐 관계중독을 야기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이 개인적인 상황과 같은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왜곡하거나 방어적인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또는 면담 등 다양한 방식

의 연구가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횡단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정하기에 어렵다. 본 연구는 만 18세 이전 아동기에 대인외상 경험을 겪은 초기 성인기의 성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중요하고, 가외변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동기 외상의 설문은 만 18세 이전의 경험을 회상하여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면서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확한 경로를 알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로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기 대인외상과 관계중독 사이에서 작용하는 변인으로 심리적 수용과 자기체계 손상만을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기에 대인외상을 경험한 이후 어떤 특징이 관계중독을 유발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예방 및 치료적으로 개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기반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나래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아름 (2012). 수용-전념 치료가 죽음관련 외상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통, 부정적 정서수준 및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옥주 (2015). 대학생의 대인간 외상 경험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체계 손상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해수 (2003).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민 (2016). 심리적 외상경험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수, 조진무, 송윤미, 이정권 (2004). PC방 이용자들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불안 및 대인회피 성향과의 연관성. 대한가정의학회, 25(6), 455-461.
- 김지연, 심혜원 (2015). 불안정 성인애착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성관계 갈등해결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00-300.
- 김환, 한수미 (2015). 어릴 적 외상 경험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251-274.
- 노푸른 (2014). 수용전념치료(ACT)가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885-910.
- 문현미 (2006).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수용-전념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기 성인기의 친밀한 대인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배미향 (2014).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손승희 (2017). 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43-763.
- 송승훈 (2007). 한국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인섭 (2001). 통계학의 기초. 출판사: 학지사.

-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삼현진 (2013).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의 사회불안의 관계 :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지, 14(6), 3709-3722.
- 안현의 (2007). 복합외상 (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자기체계의 손상으로 본 복합외상증후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283-301.
- 우상우 (2014). 관계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이론적 모형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우종필 (2016).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윤호균 (2005). 심리 상담의 치료적 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13.
- 이선미, 김정희 (2002). 버스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 관련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47-563.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의선 (2004). 관계중독의 기독교 상담적 치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숙, 하양숙, 김기정, 김정희, 권용희, 박진경, 이나운 (2003). 일개 지역사회 재해 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도와 관련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3(6), 829-838.
- 이지원, 이기학 (2014). 불안정애착 및 심리적 고통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65-95.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태영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문선, 박기쁨, 정성훈, 우상우 (2011). 의존성, 회피성 성격특성의 심리적 특성과 중독성향 간의 관련성.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4(1), 13-31.
- 장진이 (2010). 반복적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기체계 손상과 심리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현철, 강석후 (2007).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항목묶음이 인과 모수의 검정과 적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마케팅과학회, 17(3), 13-153.
- 주수진, 손정락 (2015). 수용 전념 치료가 대인 외상 경험에 있는 대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임상, 34(2), 353-374.
- 최나윤 (2013).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자기개념 및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승미 (2008).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수경 (2013).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체계 손상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진주 (2007). 어린시절 경험과 관계중독의 패턴연구 - 에니어그램과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에니어그램연구, 4(2), 135-161.
- 허은정 (2015). 정서인식 명확성이 자기 파괴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재홍, 최명식, 진현정 (2009). 한국어판 수용-행동 질문지 2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61-878.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Bach, P., & Hayes, S. C. (2002). The use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to prevent the re-hospitalization of psychotic patients: A random-

- 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 (5), 1129-1138.
- Baumeister, R. F., & Vohs, K. D. (2004).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Bireda, M. R. (2005). 사랑중독증 [Love addiction: A guide to emotional independence]. (신민섭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0년에 출판).
- Blum, H. P. (1973). The concept of erotized transference.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1(1), 61-76.
- Bond, F. W., Hayes, S. C., Baer, R. A., Carpenter, K. M., Guenole, N., Orcutt, H. K., . . . & Zettle, R. D. (2011). Preliminary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 II: A revised measure of psychological inflexibil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Behavior therapy*, 42(4), 676-688.
- Briere, J. (1997). *Treating adults severely abused as children: The self-trauma model* (pp. 177-204). London: Sage Publications.
- Cole, P. M., & Putnam, F. W. (1992). Effect of incest on self and social functioning: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2), 174.
- Cook, A., Spinazzola, J., Ford, J., Lanktree, C., Blaustein, M., Cloitre, M., . . . van der Kolk, B. (2005). Complex traum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iatric Annals*, 35, 390-398.
- Courtois, C. A., & Ford, J. D. (Eds.). (2009). *Treating complex traumatic stress disorders: An evidence-based guide* (pp. 82-104). New York: Guilford Press.
- Deykin, E. Y., Keane, T. M., Kaloupek, D., Fincke, G., Rothendler, J., Siegfried, M., & Creamer, K. (200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the use of health services. *Psychosomatic Medicine*, 63(5), 835-841.
- Doi, S. C., & Thelen, M. H. (1993). The fear-of-intimacy scale: Replication and exten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5, 371-377.
- Dougher, M. J. (1994). The act of acceptance. *Acceptance and change: Content and Context in Psychotherapy*, 37-45.
- Dunmore, E., Clark, D. M., & Ehlers, A. (1999). Cognitive factors involved in the onset and maintenanc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PTSD) after physical or sexual assaul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809-829.
- Erdelyi, M. H., & Goldberg, B. (1978). Let's not sweep repression under the rug. Toward a cognitive psychology of repression. In J. F. Killstrom & F. J. Evans(Eds.), *Functional disorders of memory*.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Finzi, R., Har-Even, D., & Weizman, A. (2003). Comparison of ego defenses amo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Neglec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Comprehensive Psychiatry*, 44(5), 388-395.
- Foa, E. B., Zinbarg, R., & Rothbaum, B. O. (1992). Uncontrollability and unpredictability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 anim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2(2), 218.
- Friedman, M. J., Keane, T. M., & Resick, P. A. (Eds.). (2007). *Handbook of PTSD: Science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Grand, S. (2003). Unsexed and ungendered bodies the violated self. *Studies in Gender and Sexuality*, 4(4), 313-341.
- Greenberg, L. S., & Safran, J. D. (1989). Emotion in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44(1), 19.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 Press.
- Hayes, S. C. (2006).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odel, Processes and outcome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4*(1), 1-25.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377-391.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ring, A. M., & Bachorowski, J. (1999). Emotions and psychopathology. *Cognition and Emotion, 13*, 575-599.
- Luxenberg, T., Spinazzola, J., & Van der Kolk, B. A.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DESNOS) diagnosis, Part one: Assessment. *Directions in Psychiatry, 21*(25), 373-392.
- Ozer, E. J., Best, S. R., Lipsey, T. L., & Weiss, D. S. (2003). Predictor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ymptoms in adult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 Pacella, M. L., Hruska, B., & Delahanty, D. L. (2013). The physical health consequences of PTSD and PTSD symptom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7*(1), 33-46.
- Raja, S. (2015). 트라우마 &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극복하기[*Overcoming Trauma and PTSD/New Harbinger Publications*]. (김은심, 안향란, 이은정, 오희옥 역). 서울: 눈. (원전은 2012에 출판).
- Scarf, M. (1980). Unfinished Business: Pressure Points in the Lives of Women. (pp. 542). New York: Doubleday.
- Steiger, J. H., & Lind, J. M. (1980). Statistically 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 Susan, P. (2011). *Addiction to Love*. New York: Random house.
- Taylor, S, Asmundson, G. J., & Carleton, R. N. (2006). Simple versus complex PTSD: A cluster 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4), 459-472.
- Tull, M. T., & Roemer, L. (2003). Alternative explanations of emotional numbing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 examination of hyperarousal and experiential avoidanc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3*(3), 147-154.
- Van der Kolk, B.A. (1996). *The complexity of adaptation to trauma: Self-regulation, stimulus discrimination, and character logical development*. In B.A. Van der Kolk, A. C. McFarlane, & L. Weisaeth(Eds.), *Traumatic stress: The effect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pp. 182-213). New York: Guildford Press.
- Van der Kolk, B. A. (2005). Developmental trauma disorder. *Psychiatric Annals, 35*(5), 401-408.
- Wagner, A. W., Wolfe, J., Rotnitsky, A., Proctor, S. P., & Erickson, D. J. (2000). An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n physical health.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1), 41-55.
- Whiteman, T., & Peterson, R. (2004).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Victim of Love? How You Can Break the Cycle of Bad Relationships*]. (김인화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원전은 1998년에 출판)
- Wilson, J. P., Droždek, B., & Turkovic, S. (2006). Posttraumatic shame and guilt. *Trauma, Violence, & Abuse, 7*(2), 122-141.

원고접수일: 2018년 6월 22일

논문심사일: 2018년 7월 6일

게재결정일: 2018년 11월 7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8. Vol. 23, No. 4, 1051 - 1073

The Relation between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Experience and Early Adulthood Relationship Addiction: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Traumatized Self-System

GaRyeong Kim JoonHo Park MinKyu Rhee
Department of Psych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traumatized self-systems in relationships between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and relationship addiction.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71 adults that have experienced interpersonal trauma in their childhood.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TAQ),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II (AAQ-II), Traumatized Self-System Scale(TSSS) and Relationship Addiction Questionnaire (RAQ-30). SPSS 21.0 and AMOS 21.0 was employed in data analysis. The data analysis includes reliabilit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measurement model and structural model analy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lationship addi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traumatized self-system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sychological acceptance. Second, the sequential-mediating effect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traumatized self-system between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and relationship addiction was significant.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y were presented.

Keywords: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Relationship Addiction, Psychological Acceptance, Traumatized Self-System